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아태비즈니스연구)
Vol. 12, No. 2, June 2021 (pp.187-203)
https://doi.org/10.32599/apjb.12.2.202106.187

APJB
ISSN 2233-5900 (Print)
ISSN 2384-3934 (Online)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과 체결 대상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오대혁
일류기업연구소 부소장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FTAs: Regarding Import Control Measures of the Target Country on Korea's FTA

Dae-Hyuck Oh[a]

[a] Great Company Research Institute,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1, Revised 15 June 2021, Accepted 23 June 2021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Keyword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FTA, Non-Tariff Barriers, Safeguards
JEL Classifications: **F10, F19**, F40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3448)
[a] First Author, E-mail: odh@korea.ac.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통상환경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무역협정과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실행 관세율은 매우 낮아졌다. 반면에 비관세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다자간무역협정으로 더 이상 관세장벽으로는 자국내 산업 보호는 힘들게 되었고, 이에 반해 비관세장벽의 경우는 그 효과가 관세장벽의 보호 효과보다 더 크고, 상대국에 주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을 대외경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의 유지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역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2004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현재도 협상이 계속 진행중이다. 즉, 2021년 1월 현재 발효 17건 56개국, 타결 4건 16개국, 협상진행 중 7건 11개국, 협상재개 및 여건조성 2건 2개국등 총 30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및 협상중이다.[1)]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예를 들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처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오히려 한국 상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은 자유무역협정의 여러 기대효과가 협정 체결국인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퇴색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비관세장벽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상쇄가 되는가를 분석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처럼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을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증 분석하여 서로의 상호작용 효과를 찾고자 한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체결국의 비관세장벽의 실시로 인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의 실익이 감소 즉, 수출 감소 효과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러한 점은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와 차별화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2단계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단계는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파악 및 분석이다. 비관세장벽의 종류 및 산업별(품목별)로 규제중인 내용을 파악 및 분석을 한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을 파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의 교집합과 한국의 수출량의 증감을 연결하여 분석한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의 효과가 한국기업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Ⅱ.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 둘째, 비관세장벽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 셋째,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들이다.

1)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정리

1.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중 본 주제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수출)에 관련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협정 활용도에 관련된 연구들로 이를 활용하면 기업성과가 높아진다고 실증분석을 하였다(공윤엽 2018; 김석오 정재완 2016; 송윤아외 2016; 이남구 양석준 2016; 윤영호 나도성 2013; 정인교 2009).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자원기반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김창봉외 2018; 나도성 윤영호 2011), 그리고 기업의 역량과 자유무역협정의 성과를 분석하였다(공윤엽 2018; 최단비 이춘수 2017; 김창봉 임승택 2016; 권선혜 최순권 2015),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대응전략과 이를 이용한 활용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상의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어 분석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선행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의〈Table 1〉와 같다.

Table 1.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선행연구중 기업 성과에 관련된 주요 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공윤엽 (2018)	대구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R&D 역량, 기업가정신과 수출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
김창봉외 (2018)	자원기반관점의 원산지관리역량이 자유무역협정의 수출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천주학외 (2017)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만족도와 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
최단비 이춘수 (2017)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내-외적요인이 자유무역협정의 수출성과에 끼치는 영향을 부산과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김석오 정재완 (2016)	미국 기업 입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
송윤아 외 (2016)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성과와 자유무역협정의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의지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이남구 양석준 (2016)	인적 요인을 분석하여 자유무역협정 활용이 중소기업(농식품)의 수출 경영성과에 끼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함
김창봉 임승택 (2016)	한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아웃소싱 기업 역량 및 아웃소싱 수준의 관계가 사업의 성과와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
윤성욱 신지연 (2015)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금융협정을 중국법 및 ECFA 금융협정과 비교·분석
권선혜 최순권 (2015)	FTA관련요인과 기업특성이 159개 국내자동차부품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최창범 (2015)	문헌연구와 파일럿스터디를 통하여 원산지관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실무역량으로서 4가지 능력을 도출
손수석 (2015)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3년 성과 및 대EU 무역수지적자 원인을 분석후,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

이석동 이춘수 (2015)	한·미 FTA 교역성과를 관세 양허안, 주요 경쟁국가와 수출실적 비교, 산업별 미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분석, 문헌자료를 통한 연구를 실시
박근오 (2015)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 지향성, 시장관련 학습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윤영호 나도성 (2013)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역량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조미진 (2013)	한·ASEAN FTA의 경제적 효과를 세부 품목 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품목다양성에 미친 효과와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출성과에 미친 효과 분석 함
김용태외 (2013)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설문조사)
윤영호 (2013)	자원기반관점으로 자유무역협정 활용역량과 수출성과간의 관계를 분석
최의현외 (2013)	대구지역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중FTA의 영향 조사
도원정외 (2012)	자유무역협정과 수출과의 관계,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사례 조사, 활용 전략 제시
정진섭외 (2012)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및 모델 제시
손수석 (2012)	한-미FTA와 대구-경북지역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및 활용전략 제시
나도성 윤영호 (2011)	자원기반관점에서 FTA의 수출 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
정인교 (2009)	기업의 FTA 활용수준을 분석한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
송희영외 (2008)	GTAP모형과 설문조사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 분석
김도훈외 (2007)	한미FTA의 제조업분야의 수출입효과에 대해 가격탄력성으로 분석
김완중 (2005)	지역경제블럭은 수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2. 비관세장벽과 기업의 성과에 관련된 선행연구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관세장벽의 규정, 통보문 해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왕상한 2016; 손기윤 2015; 박명현 오준석 2015; 전정기외 2012; 이길남 윤영환 2005). 둘째로는 비관세장벽의 실증분석이다. 이들 연구들은 비관세장벽이 한국기업들의 성과에 미치는 영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 또는 실증분석을 하였다(김홍률 2017; 최보영 2016;박명현 오준석 2015; 이탁윤기관 2014; 장준용외 2011; 박주근 2010). 기타 비관세장벽에 대하여 대응책 및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다음의 〈Table 2〉은 비관세장벽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비관세장벽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김홍률 (2017)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한중간의 사드분쟁으로 인하여 TBT의 영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없음.
박근호 (2017)	농업의수출과 비관세장벽과의 관계, 글로벌 가치사슬 관계에 관한 연구로 글로벌가치사슬의 중요성 강조 함
왕상한 (2016)	한중 FTA의 활용방안을 법 및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 한중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성 원칙과 동등성, 기술협력, 국제표준 및 조화, SPS 위원회 관련 조항들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
김홍률 (2016)	중국의 TBT 규모 산출후 이를 이한 한중FTA의 시사점 제시
최보영 (2016)	각국의 TBT는 한중일 3국의 제조업 무역에, SPS조치는 농업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세율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손기윤 (2015)	한-중 FTA 비관세장벽규정중 SPS 조치 규정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중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을 논의
박명현 오준석(2015)	TBT와 SPS의 통보문 분석을 통하여 수산업의 가치사슬 측면의 경영전략 연구 시사점을 도출
박명현 오준석(2015)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관세장벽의 영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출금액에 있어 차이점을 실증 분석
정재우 이길남 (2014)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검토하여 한국기업에게 EU 개척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이탁 윤기관 (2014)	한국과 중국 간의 농산물무역에 비관세 장벽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실증분석
김재영.전병호. 강병구 (2013)	한미FTA, 한EU FTA 사례를 통하여 FTA/TBT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 함.
전정기.이성형. 이대풍(2012)	WTO의 SPS협정문의 조항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 제시 함.
장용준·서정민· 김민성·양주영 (2011)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TBT의 경제적 효과, 수요자극효과, 비용증가, 거래비용 등 실증분석을 시도함
박종찬 박상길(2010)	한중일 3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비교분석 한후 시사점 제시
장용준 남호선(2010)	WTO 회원국의 기술장벽 동향 파악, TBT와 무역간의 관계에 대하여 TBT 통보문으로 실증분석
박주근(2010)	WTO 회원국의 투명성 이행조치와 한국의 무역간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를 패널테이터로 실증 분석 함
김창로.김용덕 (2008)	무역의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표준장벽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이길남.윤영환 (2005)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협정과 위생.검역조치의 적용영역과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표준문제를 분석하고 대응방안 제시

3.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 동시 연구한 선행연구

본 연구의 주제인,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총 7편이 검색되었으며 대부분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의 규정분석 연구와 효과를 비교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첫째, 자유무역협정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다(최영준 2016; 김범수 이주영 2015; 정환우 2013), 둘째, 두 분야의 규정 및 정책제안 연구들이다(왕상한 박언경 2016; 손기윤 2015; 이시영 2004).

Table 3. 자유무역협정과 비관세장벽 동시 연구한 선행연구들

연구자	주요 내용
왕상한 박언경 (2016)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위생검역조치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토대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한-중 FTA 활용 방안을 모색
최영준 (2016)	지역무역협정(RTA) 비관세장벽의 완화 효과 분석결과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모두 회원국에 영향을 주고 있음
김범수 이주영 (2015)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비관세장벽 감소의 수출증대 효과가 관세인하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손기윤 (2015)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비관세장벽의 규정 중,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 규정과 기술장벽 규정에 대한 분석으로서 FTA의 효과적인 이행 위한 정책 논의
정환우 (2013)	한중 FTA에 대해 기술무역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장벽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
이종서 (2009)	한-EU FTA 이후 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을 중심으로 공동통상정책과 FTA의 정책입안구조 및 행위자를 분석
이시영 (2004)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3가지 장벽중에서 산업별 비관세장벽과 수혜 및 피해산업을 중심으로 분석

Ⅲ. 현황분석

1. 자유무역협정 현황 분석

2021년 현재 한국은 56여 개국과 총 17개의 FTA협정이 발효되어있다. 즉, 발효는 칠레, 미국,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이며, 서명/타결은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협상 중은 한・중・일, RCEP,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에콰도르, MERCOSUR, 협상재개 및 여건조성은 EAEU, GCC, 멕시코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하며, 발효된 내용은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한국의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상대국	현황			의의
	협상개시	서명	발효	
칠레	1999년 12월	2003년 2월	2004.4.1	한국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년 1월	2005년 8월	2006.3.2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2005년 1월	2005년 12월	2006.9.1	유럽시장의 교두보
아세안 (10개국)	2005년 2월	2006년 8월 (상품협정)	2007.6.1 (국가별 상이)	제2의 교역대상
인도	2006년 3월	2009년 8월	2010.1.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2007년 5월	2010년 10월	2011.7.1	세계 최대 경제권
페루	2009년 3월	2011년 3월	2011.8.1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미국	2006년 6월	2007년 6월	2012.3.15	거대 선진 경제권
터키	2010년 4월	2012년 8월	2013.5.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년 5월	2014년 4월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년 7월	2014년 9월	2015.1.1	북미선진시장
중국	2012년 5월	2015년 6월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뉴질랜드	2009년 6월	2015년 3월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년 9월	2015년 5월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국
콜롬비아	2009년 12월	2013년 2월	2016.07.15	자원부국,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2015년 6월	2018년 2월	2019.10.1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Source: 관세청

2. 비관세장벽 현황 분석

비관세장벽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각국의 수입규제를 조사하였다. 수입규제란(Import Restrictions)란 수입국이 공정한 경쟁 또는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다양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여러 형태의 수입규제 중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y)라고 표현되는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 상계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WTO 협정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이다. 첫째, 반덤핑 조치(Anti-Dumping Measures)란 수입국으로 판매되는 특정 품목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일 품목의 '국내 가격'보다 낮은 '덤핑(Dumpling)'으로 인해 수입국의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을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를 부과하여 덤핑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둘째,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는 수출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부과하여 보조금에 의한 피해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셋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국가별, 연도별, 품목별 수입조치는 다음의 〈Table 5〉, 〈Table 6〉, 〈Table 7〉과 같다.

Table 5. 국가별 현황

국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총계
총계		153 (18)	9 (1)	45 (14)	207 (33)
북미 (2개국)	캐나다	12 (0)	1 (0)	0 (0)	13 (0)
	미국	32 (4)	7 (0)	2 (0)	41 (4)
	소계	44 (4)	8 (0)	2 (0)	54 (4)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3 (0)	0 (0)	0 (0)	3 (0)
	브라질	10 (0)	0 (0)	0 (0)	10 (0)
	콜롬비아	2 (0)	0 (0)	1 (1)	3 (1)
	코스타리카	0 (0)	0 (0)	1 (0)	1 (0)
	멕시코	3 (0)	0 (0)	0 (0)	3 (0)
	파나마	0 (0)	0 (0)	1 (1)	1 (1)
	소계	18 (0)	0 (0)	3 (2)	21 (2)
아시아 (10개국)	중국	16 (3)	0 (0)	1 (0)	17 (3)
	인도네시아	4 (0)	0 (0)	7 (3)	11 (3)
	인도	25 (6)	1 (1)	6 (5)	32 (12)
	일본	2 (0)	0 (0)	0 (0)	2 (0)
	말레이시아	3 (0)	0 (0)	1 (0)	4 (0)
	필리핀	0 (0)	0 (0)	2 (1)	2 (1)
	파키스탄	5 (1)	0 (0)	0 (0)	5 (1)

	태국	6 (1)	0 (0)	1 (0)	7 (1)
	대만	3 (0)	0 (0)	0 (0)	3 (0)
	베트남	2 (0)	0 (0)	4 (0)	6 (0)
	소계	66 (11)	1 (1)	22 (9)	89 (21)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0)	0 (0)	1 (0)	2 (0)
	마다가스카르	0 (0)	0 (0)	2 (1)	2 (1)
	남아프리카공화국	1 (0)	0 (0)	2 (0)	3 (0)
	소계	2 (0)	0 (0)	5 (1)	7 (1)
유럽 (3개국)	EU	6 (1)	0 (0)	1 (0)	7 (1)
	우크라이나	0 (0)	0 (0)	3 (1)	3 (1)
	EAEU	0 (0)	0 (0)	1 (0)	1 (0)
	소계	6 (1)	0 (0)	5 (1)	11 (2)
대양주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	6 (1)	0 (0)	0 (0)	6 (1)
	소계	6 (1)	0 (0)	0 (0)	6 (1)
중동 (2개국)	GCC	1 (0)	0 (0)	3 (1)	4 (1)
	터키	10 (1)	0 (0)	5 (0)	15 (1)
	소계	11 (1)	0 (0)	8 (1)	19 (2)

Notes: 괄호( )내 수치는 조사 중인 건수이며,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Source: 한국무역협회 저자 가공

Table 6. 품목별 현황

국가		철강/금속	화학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전기전자	기계	기타	총계
전체		96 (8)	40 (6)	26 (6)	13 (2)	8 (1)	3 (1)	21 (9)	207 (33)
북미 (2개국)	캐나다	12 (0)	0 (0)	0 (0)	0 (0)	1 (0)	0 (0)	0 (0)	13 (0)
	미국	30 (1)	2 (1)	2 (1)	3 (0)	2 (0)	1 (0)	1 (1)	41 (4)
	소계	42 (1)	2 (1)	2 (1)	3 (0)	3 (0)	1 (0)	1 (1)	54 (4)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0 (0)	1 (0)	1 (0)	0 (0)	1 (0)	0 (0)	0 (0)	3 (0)
	브라질	2 (0)	0 (0)	6 (0)	1 (0)	1 (0)	0 (0)	0 (0)	10 (0)
	콜롬비아	0 (0)	1 (0)	1 (0)	0 (0)	0 (0)	0 (0)	1 (1)	3 (1)
	코스타리카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멕시코	3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파나마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소계	5 (0)	2 (0)	8 (0)	1 (0)	2 (0)	0 (0)	3 (2)	21 (2)
아시아 (10개국)	중국	2 (1)	8 (0)	4 (2)	1 (0)	0 (0)	0 (0)	2 (0)	17 (3)
	인도네시아	5 (0)	1 (0)	1 (0)	1 (1)	0 (0)	1 (1)	2 (1)	11 (3)
	인도	8 (3)	13 (4)	4 (2)	3 (1)	2 (1)	0 (0)	2 (1)	32 (12)
	일본	1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말레이시아	3 (0)	0 (0)	1 (0)	0 (0)	0 (0)	0 (0)	0 (0)	4 (0)
	필리핀	0 (0)	0 (0)	0 (0)	0 (0)	0 (0)	0 (0)	2 (1)	2 (1)
	파키스탄	0 (0)	3 (1)	1 (0)	0 (0)	0 (0)	0 (0)	1 (0)	5 (1)
	태국	7 (1)	0 (0)	0 (0)	0 (0)	0 (0)	0 (0)	0 (0)	7 (1)
	대만	3 (0)	0 (0)	0 (0)	0 (0)	0 (0)	0 (0)	0 (0)	3 (0)
	베트남	4 (0)	2 (0)	0 (0)	0 (0)	0 (0)	0 (0)	0 (0)	6 (0)
	소계	33 (5)	28 (5)	11 (4)	5 (2)	2 (1)	1 (1)	9 (3)	89 (21)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1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마다가스카르	0 (0)	0 (0)	0 (0)	0 (0)	0 (0)	0 (0)	2 (1)	2 (1)
	남아공	2 (0)	0 (0)	1 (0)	0 (0)	0 (0)	0 (0)	0 (0)	3 (0)
	소계	3 (0)	1 (0)	1 (0)	0 (0)	0 (0)	0 (0)	2 (1)	7 (1)
유럽 (3개국)	EU	4 (0)	1 (0)	0 (0)	0 (0)	0 (0)	0 (0)	2 (1)	7 (1)
	우크라이나	0 (0)	1 (0)	1 (0)	0 (0)	0 (0)	0 (0)	1 (1)	3 (1)
	EAEU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소계	5 (0)	2 (0)	1 (0)	0 (0)	0 (0)	0 (0)	3 (2)	11 (2)

대양주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	4 (0)	0 (0)	1 (1)	0 (0)	0 (0)	0 (0)	1 (0)	6 (1)
	소계	4 (0)	0 (0)	1 (1)	0 (0)	0 (0)	0 (0)	1 (0)	6 (1)
중동 (2개국)	GCC	2 (1)	1 (0)	0 (0)	0 (0)	1 (0)	0 (0)	0 (0)	4 (1)
	터키	2 (1)	4 (0)	2 (0)	4 (0)	0 (0)	1 (0)	2 (0)	15 (1)
	소계	4 (2)	5 (0)	2 (0)	4 (0)	1 (0)	1 (0)	2 (0)	19 (2)

Notes: 괄호( )내 수치는 조사 중인 건수이며,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Table 7. 연도별 현황

	국가	98 이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총계
	전체	7	4	1	1	4	3	1	1	3	4	3	3	1	5	14	11	16	18	35	19	16	207
북미 (2개국)	캐나다	0	0	0	0	0	1	0	0	1	0	0	0	0	0	2	2	2	0	1	1	3	13
	미국	5	3	0	0	0	1	0	0	0	1	0	0	0	1	0	2	2	7	6	6	2	41
	소계	5	3	0	0	0	2	0	0	1	1	0	0	0	1	2	4	4	7	7	7	5	54
중남미 (6개국)	아르헨티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1	0	3
	브라질	0	0	0	0	0	0	0	0	0	1	0	0	0	0	4	2	1	1	0	1	0	10
	콜롬비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3
	코스타리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멕시코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	0	0	3
	파나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소계	0	0	0	0	0	0	0	0	0	1	0	0	0	0	6	4	3	1	2	2	0	21
아시아 (10개국)	중국	0	0	0	0	0	1	0	0	1	1	1	1	0	0	1	0	0	2	2	3	2	17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2	0	1	1	1	0	2	11
	인도	2	0	0	0	2	0	0	0	0	1	2	0	0	0	1	1	3	0	7	1	0	32
	일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2
	말레이시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1	0	4
	필리핀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2
	파키스탄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3	0	0	5
	태국	0	0	0	0	2	0	0	0	0	0	0	0	0	1	0	0	1	1	1	0	0	7
	대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	0	0	3
	베트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1	1	6
	소계	2	0	0	0	4	1	0	0	1	2	3	2	1	2	4	2	6	7	19	7	5	89
아프리카 (3개국)	이집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2
	마다가스카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1	3
	소계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1	0	1	7
유럽 (3개국)	EU	0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1	0	1	0	1	7
	우크라이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3
	EAEU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소계	0	0	0	1	0	0	0	0	1	0	0	1	0	0	0	0	1	1	1	1	2	11
대양주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0	1	6
	소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1	0	0	0	1	6
중동 (2개국)	GCC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1	0	4
	터키	0	1	1	0	0	0	1	0	0	0	0	0	0	1	1	0	1	0	4	1	2	15
	소계	0	1	1	0	0	0	1	0	0	0	0	0	0	1	1	0	1	1	5	2	2	19

Notes: 괄호( )내 수치는 조사 중인 건수이며,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임.
Source: 한국무역협회 저자 가공

이상의 자료는 조사중, 조사종료, 규제중, 규제종료가 모두 포함된 자료이다. 즉, 수입제한조치가 방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이후 현재 규제중 기준으로 비중이 큰 섬유의류, 전자, 철강금속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한국의 3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에 대하여 주요 수출품인 섬유의류, 전기전자, 철강금속의 비관세장벽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8. 섬유 의류

규제국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미국	5503.20	저융점 폴리에스터(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미국	5503.20	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중국	5501.30, 5503.30, 5506.30	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규제중)**
미국	5503.2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	**반덤핑(규제중)**

Table 9. 전기전자

규제국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미국	8541.40, 8501.61, 8507.20, 8501.31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세이프가드(규제중)**
미국	8504.23/9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Table 10. 철강금속

규제국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미국	7380.20, 8502.31	풍력타워 (Utility Scale Wind Towers)	**반덤핑(규제중)**
미국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반덤핑(규제중)**
미국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상계관세(규제중)**
미국	7304.31, 7304.51, 7306.30, 7306.50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반덤핑(규제중)**
미국	7213.917213.997227.20 7227.90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반덤핑(규제중)**
베트남	7210.7010, 7210.7090, 7212.4010,7212.4020,7212.4090, 7225.9990, 7226.9919, 7226.9999	착색아연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세이프가드(규제중)**
미국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반덤핑(규제중)**
미국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반덤핑(규제중)**
미국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상계관세(규제중)**
미국	7405.00	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규제중)**

베트남	7210.41/49/50/61/69/90, 7212.30/50/60, 7225.92.90, 7226.	도금강판(Coated steel sheets)	**반덤핑 (규제중)**
베트남	7207.11/19/20, 7224.90, 7213.10, 7214.20, 7227.90, 7228.30, 9811.00	반가공합금철강재(Semi-finishedandcertainfinishedproductsofalloyandnon-alloysteel)	**세이프가드 (규제중)**
미국	7208.10/25/26/27/36/37/38/3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 (규제중)**
미국	7208.10/25/26/27/36/37/38/3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09.15/16/17/18/25/26/27/2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09.15/16/17/18/25/26/27/2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 (규제중)**
중국	7225.11, 7226.11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6.61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 Resistant Flat-Rolled Steel)	**상계관세 (규제중)**
미국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5.11/12/19, 7306.19	송유관(Welded Line Pipe)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17.00, 8206.00	강철 못(Steel Nail)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25.50, 7225.99, 7226.92, 7226.99, 7225.19, 7226.19	무방향성 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4.29, 7305.20,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유정용 강관 (OCTG: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6.61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12.10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 (규제중)**

미국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상계관세 (규제중)**
미국	7221.00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6.40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반덤핑 (규제중)**
미국	7306.30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반덤핑 (규제중)**

Source: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WTO 정리

IV. 실증분석 결과

1.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 수입규제 비교

국가별 분석에 앞서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기준으로 전후 수입규제 건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래의 〈Table 11〉과 같이 자유무역협정 체결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베트남의 경우 모두 비관세장벽이 늘어났다. 미국의 경우 발효전에는 30건, 연평균 1.1건에서 발효후 32건, 연평균 6.4건으로 급증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도 오히려 비관세장벽은 증가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Table 11. 자유무역협정 발효 전후 상대국의 수입규제 비교

국가	발효일	발효전		발효후	
		건수	연평균 건수	건수	연평균 건수
인도	2010.1월	39	2.6	38	5.4
미국	2012.3월	30	1.1	32	6.4
중국	2015.12월	30	1.6	4	2.0
터키	2013.5월	19	1.2	11	2.8
태국	2007.6월	2	2.0	12	1.7
인도네시아	2007.6월	5	0.6	29	3.2
칠레	2004.4월	0	0	6	2.0
EU	2011.7월	12	0.5	3	1.0
베트남	2015.12월	2	0.5	4	1.3

Source: https://blog.naver.com/bgkim/221129135698, 김병관의원 국감자료, 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등 저자 가공함.

2. 미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 인한 한국의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여러 분석결과가 존재한다. 2018년 현재 미국의 비관세장벽의 현황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상당량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비관세장벽의 실시로 인하여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감소를 하였다. 섬유류의 경우 수출감소량은 2017년 9.08%, 2018년은 1.27%가 감소하였다. 〈Table 12〉와 같이 철강 및 전자기기 분야는 더욱 감소량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유무역협정의 수출증가 효과는 비관세장벽으로 상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2. 주요품목의 대미 수출량 변화

단위:천 불(USD 1,000) / 톤(TON)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수출중량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2016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40,725.3		179,729	
2017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27,947.2	-9.08	176,698	-1.69
2018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26,327.3	-1.27	208,856	18.2
2016	철강	72	2,520,373.2		1,679,553	
2017	철강	72	1,491,703.1	-40.81	1,373,726	-18.21
2018	철강	72	1,587,765.3	6.44	1,597,783	16.31
2016	철강의 제품	73	1,548,806.3		1,817,918	
2017	철강의 제품	73	2,348,807.4	51.65	2,645,245	45.51
2018	철강의 제품	73	1,300,278.1	-44.64	2,029,976	-23.26
2017	태양광모듈	8541409022	150,766.5		1,071,952	
2018	태양광모듈	8541409022	70,175.3	-53.45	448,080	-58.2
2016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4230000	26,657.4		249,225	
2017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4230000	23,847.0	-10.54	225,680	-9.45
2018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8504230000	14,128.9	-40.74	132,985	-41.07

Notes: 태양광모듈(태양전지가 모듈 또는 패널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Source: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 저자 가공

3. 중국

중국과는 2015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제1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섬유와 철강분야이다. 비관세장벽을 실시한 후 철강분야는 -3.89% 수출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비관세장벽으로 상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3. 비관세장벽 품목의 대중 수출량 변화

단위:천 불(USD 1,000) / 톤(TON)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수출중량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2016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07,323.7		231,834	
2017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31,950.3	22.95	277,445	19.67
2018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39,335.5	5.60	315,719	13.80
2016	철강	72	4,466,799.1		3,218,975	
2017	철강	72	4,124,172.8	-7.67	3,465,253	7.65
2018	철강	72	3,963,558.4	-3.89	3,461,437	-0.11

Source: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 저자 가공

4. 베트남

한국의 제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는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그후 한국의 수출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이 철강분야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실시 한 후 수출량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출중량 기준으로 2018년에 전년대비 -7.44% 감소하였다.

Table 14. 비관세장벽 품목의 대베트남 수출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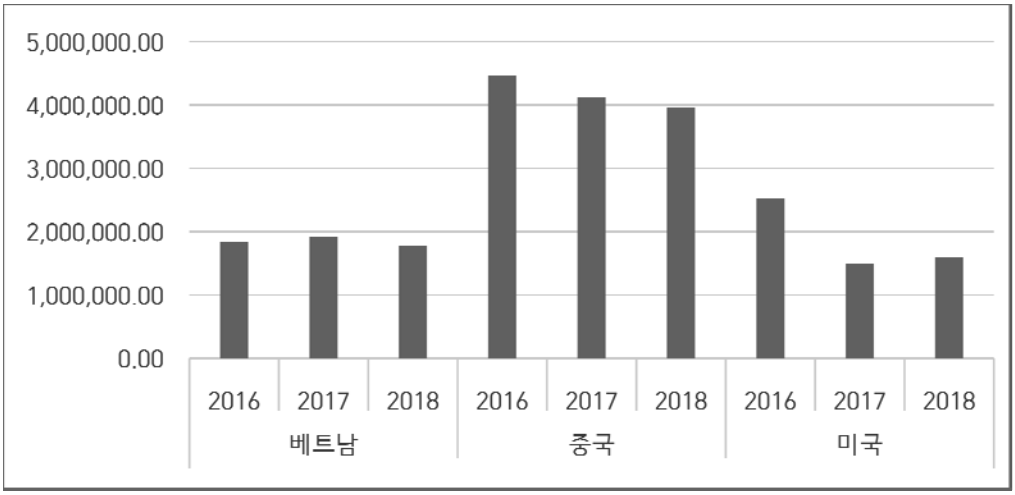
단위:천 불(USD 1,000) / 톤(TON)

기간	품목명	품목코드	수출중량	증감률	수출금액	증감률
2016	**철강**	**72**	**1,844,861.5**		**984,010**	
2017	**철강**	**72**	**1,923,670.1**	**4.27**	**1,274,706**	**29.54**
2018	**철강**	**72**	**1,780,641.4**	**-7.44**	**1,409,316**	**10.56**

Source: 관세청 수출입통계자료 저자 가공

이상 주요 3대 수출국의 수출량(수출중량기준)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공통된 품목인 철강분야의 수출량 변화를 비교하였다. 즉, 비관세장벽 대상인 철강분야의 수출감소 현황은 아래의 〈Fig.1〉 과 같다. 비관세장벽 실시후 중국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베트남은 소폭 증가후 감소, 미국은 대폭 감소후 소폭 증가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의 실시는 수출량의 감소를 불러오며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1. 3대 수출대상국의 철강 수출량 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현재 한국의 다수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상당한 수출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을 실시한 경우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비록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어도 비관세장벽을 실시하면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미국의 경우 비관세장벽의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량은 감소를 하였다. 섬유류, 철강 및 전자기기 분야는 더욱 감소량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섬유와 철강분야이며 비관세장벽을 실시한 후 철강분야는 수출량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3대 수출국인 베트남이 철강분야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실시한 후 수출량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비관세장벽이 상쇄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 및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한국 상품에 대한 연평균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협정 체결 대상국 정부로부터 불합리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 등 비관세 장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체결 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본 연구결과물은 현재 진행 또는 예정인 자유무역협상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며, 또한 미국, 인도, ASEAN,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및 개선 협상에 비관세장벽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으로 자국시장을 개방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시장을 더욱더 보호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과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기업 및 정부의 정책자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비관세장벽 여부와 수출량의 변화만 분석하였다는 실증분석의 한계점이 있으며 추후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공윤엽(2018), “대구 중소기업의 FTA 활용, R&D 역량 및 기업가정신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연구*, 17(1), 89-112.

권선혜, 최순권(2015), “FTA관련요인과 기업특성이 국내자동차부품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무역통상학회지*, 15(4), 23-49.

김범수. 이주영(2015), “한·미 FTA가 對美수출에 미치는 영향: 관세율 인하효과와 非관세장벽 감소효과를 분리하여”, *한국경제학보*, 22(3), 497~516.

김석오, 정재완(2016), “미국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인식과 활용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7(4). 121-145.

김용태 · 정재완(2013),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관세학회지*, 14(2), 45~64.

김재영·전병호·강병구(2015), “IT를 활용한 FTA/TBT 활성화 방안 연구: 한-미, 한-EU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무역연구*, 13(3), 113~133.

김창로·김용덕(2008), “무역상 기술장벽으로서의 표준에 대한 중소기업이 인식과 표준화 정책방향”, *무역학회지*, 33(5), 1-23.

김창봉, 임승택(2016), “글로벌 e비즈니스 환경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와 아웃소싱 간의 관계가 기업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17(4), 351-366.

김창봉, 정재우, 남윤미, 이주연(2018), “자원기반관점(RBV)의 원산지관리역량이 FTA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통상정보연구*, 20(1), 153-176.

김홍률(2016), “중국 무역기술장벽(TBT) 규모추정과 한중FTA에의 시사점”, *무역통상학회지*, 16(2), 1~22.

김홍률(2017), “한·중간 사드분쟁이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32(3), 211-230.

나도성, 윤영호(2011), “FTA환경 하의 수출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36(3), 23-51.

도언정 · 배정한(2012), “수출기업의 대아세안 FTA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기업 규모별 FTA 활용 성공전략 사례분석을 통해서”, *통상정보연구*, 14(4), 457~488.

박근호(2017), "농업수출과 비관세장벽, 글로벌가치사슬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75(1), 179-198.
_____(2015), "중소수출기업의 기업가지향성과 FTA활용역량,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16(1), 85-105.
박명현·오준석(2015), "비관세장벽으로의 TBT · SPS와 경영전략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61-487.
_____(2015),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비관세장벽 영향 차이 분석",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3-280.
박종찬·박상길(2010), "한중일 관세 및 비관세장벽과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5(5), 25-54.
박주근(2010), "WTO/TBT 협정에 따른 표준의 투명성 이행조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국제통상연구*, 15(4), 25-57.
손기윤(2015),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국제경제법연구*, 13(2), 61-76.
손수석(2012), "한-미 FTA가 대구.경북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30(4), 89~113.
_____(2015), "한-EU FTA 발효 3년의 성과와 향후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33(2), 191-221.
송윤아, 강지원, 이재은(2016),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기 체결 FTA 활용성과와 학습지향성이 한·중·일 FTA 활용의지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41(5), 41-62.
송희영 · 이영주(2008), "한 · 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관세학회지*, 9(2), 1~23.
왕상한, 박언경(2016), "중국 위생검역분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한-중 FTA 이행방안", *정희법학* , 51(2), 303-334.
윤성욱, 신지연(2015), "한-중 FTA 금융협정의 성과와 한계: 중국-대만 ECFA 금융협상과의 비교", *국제통상연구* , 20(4), 155-184.
윤영호, 나도성(2013), "FTA활용역량과 수출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관점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38(2), 295~319.
이길남·윤영한(2005),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및 위생·검역조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제상학*, 20(2), 203-207.
이남구, 양석준(2016), "FTA 활용이 농식품 중소기업의 수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업 내 인적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33(3), 135-158.
이석동, 이춘수(2015), "한·미 FTA 협정에따른 교역성과에 관한 소고: 대미 섬유류 수출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16(1), 107-127.
이시영, 전성희(2004), "한. 일 FTA:비관세 장벽과 피해산업", *일본연구논총*, 19, 157-180.
이종서(2009), "한-EU FTA 이후 신(新)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을 중심으로",*국가안보와 전략* , 9(2), 107-150.
이탁·윤기관(2014), "비관세장벽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동북아경제연구*, 26(1), 35-60.
장용준·남호선(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장용준·서정민·김민성·양주영(2011), "무역상 기술장벽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정재우, 이길남(2014), "EU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해를 통한 EU시장 개척 방안", *통상정보연구*, 16(4), 187-221.
정환우(2013), "중국의 비관세장벽과 한·중 FTA 협상시사점: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SPS)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 11(3), 89-115.
전정기·이성형·이대풍(2012),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필요이상의 무역제한적 조치'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7(1), 45-67.
정인교(2009),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13(3),
정진섭 · 이민재(2012), "FTA를 활용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전략", *국제경영리뷰*, 16(3), 203-234.

조미진, 장용준, 김한성(2013), “한·ASEAN FTA의 수출 성과 분석”, *국제통상연구* , 18(1), 25-55.
천주학, 한인수, 오근엽(2017),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만족도와 성과의 관계 실증 분석”, *국제통상연구* , 22(3), 59-84.
최단비, 이춘수(2017), “내적·외적요인과 한·미 FTA 수출성과: 부산, 경남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제상학*, 32(2), 129~145.
최보영(2016), “한・중・일의 비관세장벽이 3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 28(2), 39-67.
최영준(2016), “지역무역협정(RTA) 비관세장벽의 완화 효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중심으로”, *무역통상학회지*, 263 ~ 281.
최의현 · 태동유(2013), “한·중 FTA 체결이 지역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기업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36(4), 57~84.
최창범(2015), “수출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의 실무역량과 원산지 검증성과 간의 관계”, *무역학회지* , 40(5), 361-378